

두 번째 질의입니다(2/20).

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는 2016년부터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어 운영위원회로, 이어서 농촌활성화사업(사)서수면사람들로 전환되어 8년간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열정과 땀이 베어있는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에 즈음하여 위탁계약을 통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지원해야 할 군산시는 본 단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저의를 보이게 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도 않고 숨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준공에 따른 상세예산을 공개하라고 하여도 아직까지도 묵묵무답입니다

우리는 공문을 통하여 센터가 준공이 되는대로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군산시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우리에게 통보하기는커녕 그 흔한 현수막 하나도 걸지 않고 주민들도 모르게 소리없이 준공을 하였습니다. 어찌구니가 없는 군산시 행정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해 5월 센터가 임시 개청 이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수차에 걸쳐 위탁계약건에 대해 군산시 농축산과 및 서수면에 질의와 면담을 하였고, 당시 군산시 농축산과 K모계장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을 봐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을 들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저 인내하고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현 서수면장은 한 술 더 떠 처음부터 우리 농중활 단체를 배제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군산시 퇴직 공무원에게 농중활사업추진 공로패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수여하는 것도 모자라 시기와 질투에 눈이면 H이장을 비롯한 일부 세력과 술마시고 밥먹으며 협잡, 연판장을 돌리게 하는 등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편파적인 행동을 일삼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최소한의 도덕과 복무지침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 아프게 생각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 마을사업을 빙자하여 맹지에다 마을사업을 허가하는 공무원이나 사업을 따 왔

다고 현수막으로 자랑하는 이장을 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 공간을 뺏기니 이런일 도 생기는구나 자조 섞인 한숨을 쉬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군산시 공무원의 부패를 보며 청렴도에서 군산시가 꼴찌를 하고 있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참고 인내하며 사무실도 없이(건설업자에게는 사용케 해도)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궁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아무런 행동도 조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주민을 상대로 인공지능 교육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조차 설치를 못하고 있어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게 생겼습니다. 농중활 운영사무실도 폐쇄하고 있고, 북 카페도 열지 못하게 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금의 서수면무궁화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과거 모 공무원이 말대로 서수면 주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생각도 해 봅니다. 아니면 초기에 우려했던 당시 면장이었던 Y가 퇴직 후 자신이 운영 관리하겠다고 공헌했다고 한적이 있는데 Y에게 사용케 하려 함 인지(당시 Y 공무원은 서수면 예산을 군산시에 반납하며 서수면 주민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던 사실이 있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열거하기에도 부족한 수 많은 비리와 부패 비 상식적이고 비 도덕적인 행동과 행태들을 보며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구역이고 한 사람 건너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애써 눈감아 왔던 우리의 잘 못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관만 하지 않을것임을 재차 천명하면서, 금년 초 서수면에서 개최된 “시장과의 대화”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 했으나 우리 단체를 배제하고 우호세력들만 모여 마치 단합대회 하듯 하였다 들었습니다. 군산시장님은 우리가 배제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로 우리를 배제하였던 것입니까?

군산시장님은 시정의 책임자로 직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서수면의 산적인 모든 문제들을 조사하고 감사하여 엄정대처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1.

농촌활성화사업 (사) 서수면사람들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일동